

<서평>

달지만 달지 않은 이야기

엄은희, 『흑설탕이 아니라 마스코바도: 필리핀 빈농의 설탕이
공정무역 상품이 되기까지』, 서울: 따비, 2018.

송 은 영*

설탕 혹은 설탕의 역사는 단맛보다는 쓴맛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단맛 뒤에 숨은 쓴 맛을 보는 순간, 또 하나의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0쪽)

흑설탕이 아니라 마스코바도? 흑설탕은 익숙한데, 마스코바도는 생소하다. 그렇다고 해서 설탕에 대해서 잘 아느냐고? 그것은 또 아니다. 설탕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익숙할 뿐이지, 막상 생각해보면 설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그런 독자들에게 이 책은 가난한 이들의 설탕이라고 일컬어졌던 ‘마스코바도’라는 현미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스코바도를 통해 바라 본 세상은 단순히 설탕을 둘러싼 단층적인 세상이 아닌, 그 너머의 여러 겹의 세상이다. 한 꺼풀, 한 꺼풀 벗길 때마다 설탕과 그를 둘러싼 세상은 결코 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보았던 단층적인 세상이 달콤하기 만한 고운 입자의 설탕이라면, 이 책을 읽은 후에 본 세상은 마치 마스코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위촉연구원. sey940505@naver.com.

바도와 같다. 새하얗지도, 곱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영양가 있다.

마스코바도는 우리가 익숙한 백설탕이나 흑설탕과는 달리 비정제 설탕이다. 백설탕과 흑설탕은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공장식 설탕으로, 고운 입자를 만들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당밀을 제거하는 추가 공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러한 당밀에 오히려 사탕수수에 함유된 영양물질이 담겨있다. 즉, 곱고 일관적인 설탕입자를 만들려는 추가적인 공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영양물질이 걸러지는 것이다. 이와 달리, 비정제 설탕은 이러한 기계식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설탕이다. 이는 근대 공장식 설탕이 고급설탕이라고 여겨지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는 듯 했으나, 세계의 소규모 사탕수수 농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남았다. 다양한 열대 국가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통해 만들어지는 비정제 설탕 중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것을 마스코바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마스코바도는 한때 가난한 자들의 고급스럽지 못한 설탕이었으나, 이제는 공정무역을 통해 농민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이 책은 마스코바도를 통해 ‘필리핀’과 ‘설탕’ 그리고 ‘공정무역’을 이야기 한다. 책의 뒷표지에도 소개되었듯이, 필자는 이 책에서 필리핀 설탕사(史)이자 설탕으로 본 필리핀 사 그리고 필리핀 설탕을 둘러싼 공정 무역사를 다룬다. 200페이지 가량의 얇고 작은 이 책의 표지를 여는 순간, 넓고 깊은 이야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달지만 결코 달지 않다.

I. 달지만 달지 않은 이야기: 지역 연구

이 책은 지역 연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성을 제시한다. 평자는 동남아 지역 연구의 길로 아직 들어서진 못한 지역 연구 지망생이다. 올해 초, 스리랑카의 시나몬을 다룬 학위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이제 동남아 지역 연구를 위해 박사 과정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필자에게 이 책은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꿈이자 부담감이다.

앞서 말했듯이, 필자는 석사학위 논문의 소재로 향신료의 일종인 시나몬을 선택했다. 시나몬을 선택한 계기를 간단했다. 학부 시절, 봉사 활동으로 스리랑카의 카란데니아라는 마을에서 두 번에 걸쳐 총 4주 정도 생활을 했는데,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시나몬 재배를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당시 봉사활동을 인솔하신 교수님의 도움으로 몇 일 동안 공식적인 봉사 활동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재밌었다. 그 경험이 지역 연구를 하고 싶다는 꿈으로 이어졌고, 석사 학위 논문 소재를 고를 때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막상 석사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접한 시나몬과 시나몬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너무 넓고 깊어서 그 모두를 다루기에는 나의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결국 곁핥기 식의 얇은 연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평자에게 이 책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깊은 동시에 넓다. 우선 연구적인 측면에서 깊다. 이 책은 동남아 지역학 연구자인 필자가 2010년에 집필한 논문 “공정무역 생산자의 조직화와 국제적 관계망: 필리핀 마스코바도 생산자 조직을 사례로”와 iCOOP 협동조합연구소의 연구용역과제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에 기초한다. 필자는 연구 지역인 파나이섬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현장조사를 토대로 마스코바도 공정무역을 둘러싼 사람들의 조직과 그들의 관계를 밝혀냈다. 이때, 단편적인 부분을 넘어서 이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떻게 발전했는지,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어떠한 세상을 지향하는지를 다룬다. 단순한 스냅샷 찍기를 넘어서 그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간 것이다. 필자의 현장조사에 기반한 연구가 주로 다뤄진 4장 “파나이섬과 마스코바도”를 보다보면 필자의 조사 내용이 간결하게 정리된 표들을 볼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내용을 하나씩 보면 필자가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연구를 진행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깊기도 하지만 동시에 넓다. 일반 대중들이 읽어도 전혀 어렵지 않다. 이 책의 문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글의 구성이 일반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2장의 존재에서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다. 2장은 일곱 개의 키워드로 필리핀을 소개하는데, 크게 필리핀의 전통사회의 기본이 되는 인적 공동체이자 현재 가장 기초적인 행정단위인 바랑가이, 태평양을 통해 본 필리핀의 식민역사, 스페인 식민시대의 유산인 카톨릭, 미국 식민시대의 유산인 영어와 미국화, 필리핀의 자연재해와 인재, 현재 필리핀의 최대 수출품인 해외 필리핀 노동자와 BPO산업 그리고 피플파워이다. 이러한 일곱 개의 키워드들은 단순히 필리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다소 심화된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어, 뒷부분을 이해하는데 거름이 된다.

더 나아가, 이 책은 독자를 책 속 이야기의 주체로 끌어들여 책 속의 행위자의 폭을 넓힌다. 필리핀의 설탕 이야기를 하지만, 촘촘하게 한국과 연결을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먼 나라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 파나이섬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공정무역을 진행하는 파나이공정무역센터(PFTC)와 한국의 iCOOP이 어떻게 결합해 한국으로 마스코바도를 들여왔는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설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 끊임없이 한국과 연결을 시킨다. 이를 통해 필리핀의 설탕 이야기가 결코 먼 곳의 이야기

가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 있음을 상기시키고, 독자로 하여금 더욱 더 주체성을 갖게 한다.

이렇듯 이 책은 평자에게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필자가 했을 결코 달지 않은 치열한 지역 연구의 세계를 보여준다. 동시에 ‘나도 언젠가 이러한 연구를 진행해 이런 책을 쓰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하면서도 ‘이와 같이 깊은 연구를 통해 넓은 책을 써야한다’라는 부담감을 안겨준다.

II. 달지만 달지 않은 이야기: 필리핀의 설탕사, 그리고 농업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적으로 보인다. 변화가 비교적 눈에 보이는 타 산업에 비해 농업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다보니 농업 연구는 소위 주류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반 대중들에게도 농업의 변화는 의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필리핀의 설탕이라는 사례를 통해 자본주의 시대 이후의 농업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농업의 변화를 의식의 대상으로 만들어준다. 동시에 주변화 되어 있던 농업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책의 3장 “필리핀 역사에서 설탕의 위치”에서는 필리핀 역사 속에서 설탕을 추적하여 필리핀 내부의 달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탕수수는 필리핀에서 전통사회부터 재배되어 왔다. 자급자족 수준이었던 사탕수수재배가 상업적인 설탕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스페인 식민시기 중후반인 1780년대부터이다. 중남미를 중심으로 식민 지배를 해왔던 스페인이 중남미 식민 국가들의 독립운동과 타유럽 열강과의 경쟁으로 점차 힘을 잃어가면서, 필리핀에서 설탕을 비롯한 농업상품의 상

업적 전환의 시동을 건 것이다. 이를 통해 19세기 초부터 필리핀에는 설탕 플랜테이션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설탕은 필리핀의 중요한 농산물로 자리 잡게 된다. 설탕이 세계 경제 속으로 편입된 것은 필리핀이 영국의 마닐라 점령을 계기로 외부 세계로 개방되면서이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설탕의 재배 및 수출도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필리핀 설탕산업의 형성 및 변천 과정 속에서 대규모 사탕수수 재배 단지들이 나타났고, 동시에 중국계 메스티조들이 필리핀의 사회·경제적 엘리트로 성장했다.

필리핀의 설탕산업은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더 활성화되었다. 필리핀의 대미 수출 관세가 전면 폐지되면서 1920~30년대에는 필리핀 설탕산업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이 때, 미국 시장에서 선호되는 백색설탕을 생산하기 위해 자본에 기반한 현대식 제당공장, 슈가센트럴이 생겨났고, 수요 과점을 이용해 슈가센트럴의 운영자들이 필리핀 설탕산업의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농장주들은 계속해서 불리해졌고, 자본을 가진 대지주들과 제당공장 소유자들이 유리한 사회구조가 만들어진다. 독립 이후에도 필리핀의 설탕산업은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에 의존했고, 기존의 사회구조는 고착화된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의 필리핀 농산물에 대한 특혜관세 철폐 및 유럽 국가들의 자국 사탕무 농부들을 위한 보호 정책으로 인해 필리핀의 설탕산업은 크게 쇠락한다. 이는 전체 경작지의 80% 이상이 사탕수수 단일 작물로 고착화된 상태였던 네그로스 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지주와 중간관리자들은 섬을 빠져나간 반면에 빠져나가지 못한 사탕수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섬에 남아 기아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일본의 한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설탕인 마스코바도를 이용한 공정무역을 시작하면서, 점차 희망이 번지기 시작했다.

5장의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세계 자본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농업-먹거리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과정 속에서 생산자로서의 농민의 역할을 점점 축소되어 왔다. 이 책안에서는 필리핀 설탕산업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몇 백년간의 긴 역사를 이야기하느라 중점적으로 다루지진 않았지만,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농업 분야,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업 분야에서는 급격한 재구조화가 일어났다(Reardon et al. 2009; Gómez et al. 2011). 재구조화 과정 속에서 기존의 공적이었던 부분들은 사적인 부분으로 바뀌고, 현물시장 기반의 관계는 계약 및 시장 내 수직적 공급 사슬 관계로 바뀌었으며, 지역 단위 공급에서 국가적·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공급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하나의 경향성을 지니는데, 경쟁적인 시장 속에서 가격을 줄이고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Reardon et al. 2009).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나마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재구조화 방식은 수직적인 공급 사슬의 형성으로 인한 계약 재배의 증가일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형마트들이 비교적 최근 몇 십년간 일어난 재구조화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최근 대형마트에 가면 특정 작물 앞에 그 작물을 재배했다며 웃고 있는 농부의 사진을 붙여있기도 하다. 이 또한 최근의 농업이 어떻게 재구조화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재구조화 과정 속에서 농부 및 농경지 노동자는 그들의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농산물 가공·유통 기업들이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부들과 계약 재배를 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작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농(大農)을 선호하면서, 소농(小農)은 재구조화 과정에서 변두리로 배제된다. Vicol(2014)은 인도의 마하라시트라주를 사례로 감자를 재배하는 농부들과 슈퍼마켓 간의 계약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 재배가 농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특권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농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소비자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띤다. 소비자는 농부와 농경지 노동자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반면에 그들을 좀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를 소비자가 획득하여 노동자가 획득하는 것은 낮춰버리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McGrath(2013)는 브라질 사탕수수 에탄올 시장의 노예 노동을 사례로, 노동집약적 단계가 나타나는 구매자주도의 생산 네트워크에서 소비자가 농부들이 창출한 가치를 빼앗아 농부들이 계속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최근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가격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과정 혹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 중 하나가 이 책의 주된 소재 중 하나인 ‘공정무역’이다.

Ⅲ. 달지만 달지 않은 이야기: 착한 무역 너머의 공정무역

이 책을 통해 나는 한국의 공정무역이 ‘착한 무역’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고자 했다. 선하고 가난한 생산자가 공정무역 네트워크에 연결되려면 당연히 생산자들을 조직하는 사람과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종 그 사람과 조직은 생산국의 맥락에서 ‘반란죄’라는 명목으로 기소당하거나 정치적 살해를 당할 만큼 큰 위협을 무릅써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거래에 앞서 생각을 바꾸는 적극적 마주침이어야 한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서 관계 맺음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요구한다.

(196쪽)

민일 이 책이 기존의 공정무역에 대한 정의나 인식을 그대로 안고 갔다면, 이 책에 거부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착한 무역’이라는 이름의 단순한 거래로서의 공정무역을 거부한다.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의 만남으로서의 공정무역을 추구한다. 사실 착한 무역으로서의 공정 무역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착하게’ 포장된 겉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남으로서 공정무역을 보는 순간, 결코 공정 무역은 아름답기만 하지 않다.

사실 평자는 공정무역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비단 평자뿐만 아니라 몇몇 연구들도 공정무역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은 던지곤 한다.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많은 인증제도와 공정무역이 막상 농부들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힘을 제공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Brown 2013; 이승철 외 2016). 예를 들어, 이승철 외(2016)는 베트남 닥락성 지역의 커피 산업을 통해 인증커피가 오히려 농부들을 더욱 더 취약한 위치로 밀어 넣고 있다고 주장한다. 베트남 닥락성 지역의 농부들은 기존에 착취적인 가치사슬에서 커피를 생산하다가 최근 인증 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인증 커피를 생산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커피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행위자간의 이윤 분배의 위계성은 더 심화되고, 농부가 중개인이나 다국적 기업에 더욱 더 종속되면서 농부들은 더 취약해지고 말았다. 즉, 소비자가 농부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행동들을 역이용해 중간의 기업이나 중개업자들이 오히려 농부들을 더 취약한 위치로 내몰아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평자가 기존에 공정무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상은 공정무역도 결국은 최근 나타나는 계약재배의 한 흐름이며, 오히려 공정무역으로 인해 기존의 특권구조가 그대로 재생산되고, 기업은 공정무역이

라는 것을 이용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버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무역이 어쨌거나 국내 시장을 위해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식량주권의 개념에도 위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필자가 지양하고자 한 ‘착한 무역’으로서의 공정 무역에 사로잡힌 생각이었다. 이러한 프레임에 갇힌 나머지, 공정무역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진짜 착한 것인지, 착한 얼굴의 탈을 쓰고 있는지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위의 연구와 같은 결과들도 공정 무역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특히 기업이나 중개업자들이 ‘공정 무역 = 착한 무역’이라는 프레임에 사로잡혔거나 오히려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지향하는 대로 사람 대 사람간의 만남으로서의 공정 무역을 보는 순간, 공정 무역의 여러 결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서의 공정무역은 사람과 그들의 만남이 강조된다. 4장 “파나이섬과 마스코바도”는 KABALAKA라는 NGO를 운영하던 루스 살리토라는 여성이 이탈리아의 공정무역단체인 CTM과 만나 파나이공정무역센터(PFTC)를 만들어 공정무역 상품인 마스코바도를 판매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PFTC가 현재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조직체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듯 아름다워 보이는 이야기에 마지막 6장 “나가는 글”에서 다뤄지는 로메오 카팔라의 죽음과 루스 살리토의 현재 이야기는 다소 충격으로 다가온다. 더불어 필자가 왜 그토록 착한 무역으로서의 공정 무역에서 벗어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책을 통해 머릿속의 공정 무역에 대한 프레임을 바꾼 것은 앞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평자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공정 무역

의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여러 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착한 무역이라는 포장에 쌓여있는 달콤한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안의 달지는 않지만 깊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보면서 고민이 되던 측면이 있다. 필자가 마스코바도 공정 무역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는 부분에는 공정 무역을 통한 소득이 이들의 경제적 조건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대체로 연간 총 현금소득의 50% 이상을 마스코바도 생산에서 얻고 있으며, 현금소득의 100%를 공정 무역을 통해 얻는다고 답한 이도 전체 응답자 20명 중 7명(약 30%)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정도로 마스코바도 생산이 지역 사회와 마스코바도 생산자 조직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Andriess et al.(2018)은 태국의 고무 산업의 사례를 소개하며, 단일 작물 경작이 개별 소작농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밝힌바 있다. 만약, 마스코바도 생산에서 얻는 이윤의 정도가 점점 늘어나 특정 지역의 농부들이 마스코바도 생산 비중을 높여 거의 모든 수입원을 마스코바도 생산에 의존한다면, 마스코바도를 판매하는 판로가 막히는 순간 다시 위험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까? 물론 이는 평자가 공정무역을 잘 모르고, 그 내부의 시스템을 깊이 알지 못해서 나온 고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한 공정무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던져볼만한 질문인 것 같다.

〈참고문헌〉

- 이승철·정수열·조영국. 2016. “베트남 커피변경지역의 글로벌 가치 사슬과 공유가치 창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2): 399-416.
- Andriesse, Edo, and Puntita Tanwattana. 2018. “Coping with the End of the Commodities Boom: Rubber Smallholders in Southern Thailand Oscillating Between Near-poverty and Middle-class Status.”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34(1): 77-102.
- Brown, Sandy. 2013. “One Hundred Years of Labor Control: Violence, Militancy, and the Fairtrade Banana Commodity Chain in Colombia.” *Environment and Planning A* 45(11): 2572-2591.
- Gómez, Miguel I., et al. 2011. “Research Principles for Developing Country Food Value Chains.” *Science* 332(6034): 1154-1155.
- McGrath, Siobhán. 2013. “Fuelling Global Production Networks with Slave Labour?: Migrant Sugar Cane Workers in the Brazilian Ethanol GPN.” *Geoforum* 44: 32-43.
- Reardon, Thomas, et al. 2009. “Agrifood Industry Transformation and Small Farmers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7(11): 1717-1727.
- Vicol, Mark. 2014. “Potato Contract Farming and ‘Privileged Spaces’: Preliminary Insights from Rural Maharashtra.” *DIE ERDE - Journal of the Geographical Society of Berlin* 145(3): 142-147.